

2012.02

다양성안에서일치를  
추구하는다일공동체

www.dail.org

다일  
공동체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야”  
캄보디아 쓰룩뿌억 다일교회에서

#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희망으로...



씨엠립 다일실내체육관에서 브로빠오와 함께

2월을 시작하지마자

아시아다일비전센터 착공식을 위해

캄보디아 씨엠립에 있는 동남아 다일공동체본부를 다녀왔습니다.

10년전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지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공유했기에

그곳에 세워질 비전센터를 통해서 캄보디아 사람들과 동남아 아시안들이 미래를

이끌며 섬기는 리더가 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대한 산 소망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네팔다일공동체의 책임자로 잘 섬기고 있는 팀세나 부먼 형제처럼

캄보디아도 현지인들이 그곳을 스스로 책임지며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재가 되며 세계적인 NGO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며 훈련하는 과정을 하나씩 돌씩 갖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시골 마을 하나가 다일공동체 하나로

참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이구동성 말합니다.

물론 거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눈물의 기도와, 함께 한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꾸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첫 삽을 뜬 아시아 다일 비전센터를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리기는 이 회보를 받아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셔서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시길 소망합니다.

노숙인 임종쉼터인 다일작은천국에서 간암말기환자로 생활하시다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분도 거리를 떠돌다 어느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몰랐던 분이었는데, 다일작은천국이 마련되어 이곳에서 평안히 마지막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988년 다일공동체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더 이상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임종자의 집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20년만인 지난 해 2011년에 다일작은천국이 설립된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 의지할 가족도, 거처할 곳도 없는 노숙인들이 더 이상 불안해 하지 않고

가족같은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마음만 준비되었다면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아하!!

2012년 2월에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작은형제, **취민도** 목사 올림



# CONTENTS

2012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 02 Focus 희망으로 가는 길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를 낮출 수 있다면...
- 06 함께 나누는 이야기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 08 다일의 현장 다일천사병원
- 10 다일의 현장 설곡산다일공동체
- 12 다일의 현장 필리핀다일공동체
- 14 다일의 현장 베트남다일공동체
- 16 공심은데 밥난다 해피빈나눔캠페인 한 알의 콩이 한 톨의 밥이 되어
- 18 포토에세이
- 19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 20 다일 뉴스



**포지사진 설명** 지뢰 피해 마을의 슬픔을 딛고 세워진 쓰록뿌억예배당.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후원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http://www.dail.org)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발행일 | 2012년 2월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 1동 495-15  
편집위원 | 김학용 이현신 이옥주 강효정 사진 | 변창재 김래홍 석승익 디자인 | 이순선 전화 | 02-2212-8004, 2213-8004 팩스 | 02-2243-8005



반갑습니다. 다일공동체를 위해서 늘 함께 해 주시는 윤석화 홍보대사님께 감사 를 드립니다. 꽤 오랜만이세요.

지난해부터 2년 예정으로 런던에 있습니다. 이제 벌써 1년이 지났고, 예정대로 라면 1년 더 이곳, 런던에서 있을 예정 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엄마,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엄마가 만들어 주었던 음식을 기억 할 수 있는 유년의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은 에미의 마음에, 무엇보다도 엄마 역할에 주력 하고 있습니다.(웃음)

팀 라이스 경( Sir. Tim Rice)과 함께 작업하고 있는 뮤지컬 '지상에서 영원 으로' 를 준비 하던 중에, 우연을 가장 한 필연인지, 필연을 가장한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는 주님의 놀라운 간섭이라고 믿습니다. 연극 'Journey's End' 와 뮤지컬 'Top Hat'의 프로듀서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녀들과 함께 밥퍼 봉사를 하셨는데 예전부터 꼭 하고 싶으셨던 일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 네,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은 것도 진심이지만,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하는 사랑과 공활한 마음을 몸으로, 가슴으로 체휼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밥퍼에서 진지를 드시는 어르신들 생신 축하도 있었는데, 특별히 선물도 준비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한복을 준비하셨고, 전해주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고 마음을 전하셨는지...)

친척 어른에게 선물을 하는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밥퍼에서 진지를 드신 그 세월이 쌓인 어느 날, 환갑을 맞으신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사랑의 선물이 되기를 기도 했습니다.

전해 드렸고, 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로지 이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도, 여기 아직...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계시죠? (영화 내용 짧게, 그리고 영화에 대한 바람)

영화 '봄 눈'은 지난 11월에 부산에서 촬영을 했고,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 개봉을 하게 됩니다. 전혀 제가 계획 했던 일도 아니고...할 수 있었던 일 정도 아니었는데...

사나리오를 읽고, 내가 만일 이 영화를 한다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를 낮추고 할 수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내가 네게 연기를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거든, 이 작품이 참 예쁘구나" 그렇게 말씀 하실 것 같았습니다.

암으로, 조금은 일찍 세상과 이별을 해야 했던 '에미'의 역할이었는데,



사진설명  
위 · 어린 자녀들과 함께 주황색 밥퍼 앞치마를 나란히 입고 밥퍼 봉사  
아래 · 직접 준비한 선물을 생일 맞으신 어르신 들께 전달하는 윤석화 홍보대사



사진설명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하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몸으로, 가슴으로 체험하게 하고픈 엄마의 마음

극 중의 순옥은, 좋지 않은 형편을 꾸려야 했고, 결국 죽게 되지만...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마치 고난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사랑과 믿음이 숨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로지 긍정과 사랑의 방향으로, 죽음 앞에서 그 방향만을 바라보는 '순옥'. 그 '에미'가, 점점 완악해지는 세상과 너무 쉽게 절망하는 시대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 하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셨을 때, 다른 것은 하나도

부럽지 않은데, 박상원 홍보대사님이 중국 다일공동체에 도서관을 만들어 주고 유지태 협력대사가 네팔에 유치원을 세워준 것처럼,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부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윤석화 홍보대사님도 꼭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청량리 밥퍼 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등 해외의 다일공동체에도 방문해서 봉사도 하고 싶고 그곳의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바라기는...소망 하기는, 현지를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단기 봉사도 하고 싶



고, 좋지만... 아이들의 이름으로 작은 유치원 혹은 작은 학교를 지어 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2012년 윤석화 홍보대사님의 소망이 있으시다면요? (영화에 대해서도...)**

올해부터는...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하하하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더라구요. 제 자신이 물질적으로 더 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 나이 60세부터, 좀 더 구체적인 주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지었거늘, 참으로 보기에 예쁘구나.' 하시는 그런 삶의 비전을 실천 하려면... 올해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요. 물론, 영화가 잘 되면 그건, 물질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복을 나누고 받게 되고, 덤으로 돈도 벌겠지만요. 저는 돈 버는 재주는 없으니까요, 남편이라도 하는 일들이 잘되기를 기도합니다.

일단은 영화 '봄 눈'이 봄에 내리는 눈 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편집부

**배우 윤석화와  
2012년 개봉작 '봄 눈'**

배우 윤석화는 1975년 연극 '꿀맛' 으로 데뷔, 대한민국 최초로 10만 이상의 연극 관객을 끌어들이며 연극의 역사를 바꾸고 장기 공연의 가능성까지 입증한 '신의 아그네스' 로 조선의 마지막 황후 비운의 삶을 살아간 '명성황후' 로, 죽음을 통한 삶을 이야기한 '위트' 로 변신을 시도하며 무대 위에서 가장 아름다움 배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2년 배우 윤석화는 '레테의 연가' 이후 24년 만에 '봄 눈' (가제, 감독 김태균)의 여주인공으로 스크린에 컴백합니다.

'봄 눈' 은 평범한 엄마가 가족들과 가장 아픈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가슴 따듯

한 휴먼드라마로 윤석화는 영화를 이끌어가는 여주인공인 엄마 '순옥' 역을 맡았습니다.

특히 그 동안 강한 개성 넘치는 카리스마 연기를 선보였던 윤석화가 가장 보편적인 어머니는 캐릭터를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순옥역을 통해 대한민국 엄마의 희노애락을 그대로 담아낸 가슴 절절한 연기로 자신만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머니상을 제시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암 투병중인 역을 실감나게 소화하기 위해 제작진에게 가발이 아닌 진짜 삭발을 자청해 직접 머리카락을 자르는 '연기투혼' 을 발휘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봄 눈' 은 김태균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의 이별을 겪어 내는 가족들을 위한 격려가 담겨졌습니다. 실화를 소재로 만들어진 만큼 그 진정성과 절절함으로 올 상반기 관객들을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베스트셀러 ‘밥퍼’ 페이지에 나오는  
흑백사진의 주인공!

그 아저씨를 지금도 우린 ‘털보아저씨’ 라고 부릅니다.

24년전 야채시장 더미 위에서 밥을 먹던 행려자중  
지금까지도 생존해 계신 분은 딱 네 명!  
그 중의 한 사람이 바로 털보 아저씨입니다.

사람들과는 눈도 안맞추고 입에는 욕을 달고 살던 그가  
이제는 달라져 재활용품 정리 일등이 되고 만날때마다  
먼저 “안, 녀영~ ..” 하고 인사를 해주십니다.

오늘은 점심 먹으러 나가려는데, 어제 그제 내린 눈이 쌓여있던  
밥퍼 2층 복도와 계단을 자원해서 열심히 쓸고 계시는 털보아저씨를 보니  
마음 깊숙한 곳부터 훈훈해지면서 정말 밥 맛이 납니다!

24년전의 그 쓰레기더미 위가 지금은 밥퍼나눔운동본부로 변했듯이  
아저씨 삶의 변화는 우리에게 너무나 눈물겹고 고마운 변화고 감동으로 기억됩니다.

당신이 제 곁에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아하!!



# 긍정의 말 한 마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밥퍼는 ( )이다’ 는 밥퍼 자원봉사자들의 한 줄 소감 나눔입니다.

## “밥퍼는 감사함이다” 무원고등학교 장주희

밥퍼에 처음 왔을 땐 설레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하였다. 나는 써빙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어서 짜증이었는데 고마워하시는 분들을 보며 마음이 뿌듯해졌다. 그리고 일도 더 힘내서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에게 고마워하시는 사람들에게 나 또한 감사해지는 날이었다.

## “밥퍼는 사골국이다” 와부고등학교 김혜리

우려내고 우려낼수록 더욱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밥퍼 봉사에 참가하고 참가할수록 보람이 배가 되어 전해진다.

## “밥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김태은

제가 밥퍼에 처음 왔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땐 동아리에서 따로 왔는데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안 오다가 이번에 한 번 오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다일공동체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네요. . .

## “밥퍼는 초대장이다” 서울대학교 햇빛봉사단 이승희

배고프고 헐벗은 이들에게는 따뜻한 받는 정으로 초대하고 봉사자들에게는 행복한 주는 정으로 초대하며, 또 다른 제3자들에게는 훈훈한 나눔의 정으로 초대합니다.

## “밥퍼는 첫 경험이다” 맥스원이링크 신중현

처음엔 생소하기도 하고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봉사라는 일을 하다보니, 처음 느꼈던 느낌과 달리 웬지 모를 뿌듯함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뜻 깊은 일 지속되고 더욱더 많은 참여가 되길 바랍니다.

## “밥퍼는 웃음이다” 삼육중학교 김세리

한 명이 웃으면 그 행복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다함께 웃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밥퍼도 한 명이 시작하면 그 나눔이 널리 퍼져 너도 나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웃음은 좋은 행복바이러스, 밥퍼를 이끄는 것도 나누는 좋은 마음이니깐 그 마음 널리널리 퍼져 나갈거예요. 행복한 나눔 바이러스 밥퍼 화이팅  
..

##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

아들의 치료를 위해 함께  
한국을 찾은 뽀안이 엄마 히어.  
갑작스러운 신체의 이상 징후..  
그리고 수술... 모든 과정이  
주님의 섭리요,  
예비하심이었습니다.



1월 11일 캄보디아 소년 뽀안의 엄마 히어가 가톨릭대 성바오로 병원에서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3주 전부터 하혈을 하더니만 급기야는 수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무사히 회복하여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원래는 뽀안의 척추측만증의 재수술을 위해 보호자로서 입국을 했습니다. 뽀안의 수술 및 회복 과정 동안 간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동행한 것이지요. 뽀안이 외에도 자식들이 더 있기에 두고 온 자식거정에 뽀안이 수술을 마친 후 하루라도 빨리 입국해야 한다고 하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뽀안이 수술을 마치자, 조금씩 하혈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생리현상인 줄 알았지만, 3주가 지나도록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다일천사병원을 도와주시는 주변의 모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자궁근종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이분의 경우 혹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고, 감염 및 생리 불순 등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아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비용문제는 큰 걸림돌입니다. 뽀안은 후원이 있었기에 무사히 수술을 마쳤지만, 뽀안이 엄마의 예산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행히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의 도움으로 재정적인 큰 부담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일천사병원으로 돌아와서 회복기간을 잘 지냈습니다. 마침 뽀안이의 수술 후 염증 수치가 높아서 출국이 조금 미뤄졌기 때문에, 모자가 같은 병실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지요. 둘 다 1월 말 까지 큰 문제가 없어서 건강해진 모습으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히어의 자궁근종 진단부터 수술 후 다일천사병원으로 돌아오기 까지 과정이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갑자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들 조금 어리둥절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돌아켜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뽀안이 수술이 마쳐자마자 출혈이 시작된 사실과 마침 절묘하게 뽀안이 출국이 미뤄진 사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진찰 및 수술해주실 선생님도 때마침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가톨릭대 성바오로 병원측의 재정적인 지원까지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완벽한 계획과 공급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두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으실 일입니다. 누구 하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고, 주님께서 친히 개입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전혀 관심 밖의 인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조용히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특히 성바오로 병원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글/ 다일천사병원 김민준 의무원장



**뽀안이의 건강이 회복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 척추측만 뿐 아니라 영양실조와 빈혈까지 있었던 뽀안이었지만, 양질의 영양섭취를 꾸준히 하여 체중도 늘었습니다. 또한, 빈혈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척추 염증도 사라졌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염증이 재발할까 빈혈이 있을까 염려가 되었지만, 회복하여서 고향 캄보디아로 1월 31일 귀국하였습니다.

캄보디아로 돌아가서도 우리 뽀안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봉사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온맘다해 감사드립니다.



**'나은병원' 뽀안이 3D CT검사 후원**

뽀안이의 최종적인 수술검사결과 확인을 위해 X-Ray와 CT촬영을 '나은병원' 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뽀안이는 보험적용이 전혀 안되어 한정된 예산으로 염려가 되었었는데, 천사같은 이들의 후원과 봉사로 뽀안이가 무사히 검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후원하여 주신 나은병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온맘다해 감사드립니다.

#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일영성수련을 통해  
삶의 변화와 제자도를 걷게 되는  
놀라운 신앙 체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첫 아름다운 세상 찾기 영성수련회 135기가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5일간 침묵의 성지인 설곡산 다일 공동체에서 있었습니다.

1999년 묵안리 평화의 마을 농기주택에서 시작한 수련회가 어느덧 14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찾기 영성수련회는 수 많은 사연과 히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는 큰 은혜와 역사의 파노라마라 불려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위암수술 후 재발로 고통 속에 계시다가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한 양OO님은 근심 걱정 어두운 표정으로 참석하였지만 놀라운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고 환하게 웃으며 아름다운 세상이라 고백 할 때 저희 모두는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재 설곡산 다일자연치유센터 첫 손님으로 입소하셔서 기도와 묵상의 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현장인 침묵의 성지, 설곡산다일공동체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글/다일자연치유센터 이태형 원장



## 설곡산 다일공동체 사역소개

### 1. 다일영성수련회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 몸도 마음도 지친 이들이 나를 찾고 변화시켜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가는 여행  
2단계 작은예수 살아가기 : 침묵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깊은 만남을 통해 행동과 습관까지 바꾸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수련

3단계 하나님과 동행하기 : 매일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 누리며 작은 예수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의 길 안내

### 2. 침묵 묵상 수련

침묵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무르는 기도와 삶으로 안내

### 3. 개인 소규모 피정

몸도 마음도 지쳐 마음 돌 곳 없이 어디로 갈지 떠오르지 않거나, 비쁜 일상속에서 자신을 찾을 수 없었다면 일단 한 걸음 멈추고 침묵의 성지 설곡산다일공동체에서 쉬을 얻을 수 있습니다.

### 4. 단체대관

설곡산 다일공동체는 소규모, 대규모 단체가 숙박하면서 수련회,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행사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숙소와 강당들이 있으며, 예약하시고 방문 하실 수 있습니다.

2002년 어느 날 나는 답답한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왔다. 부산, 울산에서 오락실, 만화 도서방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 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찮아 네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나와 세상과의 괴리. 가정의 갈등... 아! 정말 미치고 싶은 나의 심정.....

매일 소주 2병씩 까고... 담배 한 갑은 기본... 그것도 잠시! 세월 가면 갈수록 막막함... 아! 나도 결혼해서 품나게 살아봐야 되는데... 정말 잘 안되는구나? 그리하여. 냅대! 친구와 누님이 계신 서울로... 3박4일 친구들과 밤새 술마시고... 그렇게 지내다 누님이 바람쐬려 가자고 하여 온 곳이, 묵안리에 있는 다일영성수련원, 아니! 우째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지각 변동!!! 대 지진이 일어 났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누구의 것 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고 38년을 살았는데... 전혀 다른 삶이 있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머리가 아닌 온 몸으로 깨닫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내 안에 아픔 때문에 4박5일을 울었다. 어머니의 자살. 가정 불화. 애인과의 아픔... 그 다음은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 속고 살았던 것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4박5일을 울었다. 참석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해 함께 울었다. 또, 아픈 나를 위해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다일영성수련회를 통해 새로와 졌다.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다. 그리고 모두가 사랑스러워 보였다.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사랑한다" 라고 말해 본적이 없던 내가 그 때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한다. 아버지한테 먼저 "그 동안 힘드셨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형, 누나 동생에게도... 우리 가정은 모두가 평화로와 졌고, 이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다일영성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

오랫동안 나를 지켜보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최일도목사님과 많은 벗님과 자원 봉사 도우미를 통해 만났고... 이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다일공동체 훈련생으로. 밥퍼, 천사병원 봉사자로, 설곡산 다일공동체 직원으로, 베트남 다일공동체 선교사로, 캄보디아 프롬펜 빈민촌 선교사로, 묵안리 평화의 마을 총무로 그리고 지금 설곡산다일공동체 자연치유센터 원장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금 나는 참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나의 인생에 어찌 이런 일이... 아아..

모두가 다 그분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나는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의 이름은 이 태형, 그리고 다일공동체 와선 처음엔 여유로, 이제는 모세로 살고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에게 참 사랑과 평화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린다.

아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순간....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순간...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순간... 다툼이 화해와 일치로 변하는 순간.... 거기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음을... "아버지! 오늘도 참회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 했고 진실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위로하지 못 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참으로 진실되게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하소서! 제 안에 부질없는 헛된 욕망을 몰아내시고 한 평생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곡산에서 이모세 드림-



# 필리핀을 향한 사랑의 손길들

교회 예배당이 세워지면 교회 지도자와 예수의 제자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를 길러내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을의 중심이 될 정도의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여서 학교와 병원도 짓고, 마을의 교육과 문화를 주도하는 센터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새해에도 주님의 평화가 다일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지금 몹시 추울 텐데 저희들은 따뜻한 남쪽나라에서 뜨거운 겨울을 네 번째 맞이하였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겨울 추위가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이 따스함이 부러우시면 필리핀으로 오세요...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 다가오는 유치원 아이들의 졸업

다가오는 3월이면 다일드림유치원 아이들이 첫 졸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30명 어린이들은 상급반으로 올라가게 되고 다시 4세반을 30명 더 뽑아 두 학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될 30명 유아들의 1:1 결연 후원자를 찾습니다. 선착순마감(?)입니다. . .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풍성히 나눌 수 있는 복을 먼저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3만원이면 필리핀 빈민촌의 한 아이의 삶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 토요어린이 예배

토요일마다 드리는 어린이 예배도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던 구약의 말씀 선포와 성서 애니메이션 영상이 47주 만에 끝나게 되어 1월의 예배부터는 드디어 신약성경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복음서의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진지하게 잘 듣는지 정말 예뻐합니다. 하나님도 제 마음 같으시겠죠. 특히, 신약의 말씀들은 1주에 1구절씩 암송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필리핀 어린이들의 암송실력은 펍 뛰어난 편입니다. “따갈따갈” 거리는 따갈로 그로 잘도 외우는 아이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부터 차곡차곡 채워

주고 싶습니다.

인생의 고비 고비 어렵고 힘들 때 또 필요한 순간마다 평생 꺼내 쓸 수 있도록 말입니다.

## 2012 필리핀다일공동체의 새로운 비전

지난 성탄절에 4명의 청년에게 세례를 주기로 예정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말았습니다. 세례의 의미와 의식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때 필리핀 개신교인들은 모두 침례를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머리에 물을 끼얹는 sprinkle 의식은 천주교식이라며 극구 침례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마도 초창기 필리핀의 개신교 목사들이 천주교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처음부터 침례로 세례의식을 행하여 왔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변화되었는지 아니

면 나도 이곳 개신교 목사들처럼 무조건 침례를 행하던지 간에, 어찌됐던 시간이 더 필요하다 판단되어서 성탄절의 세례식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민족과 문화를 이해하고 품는 선교를 지향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많이 고심하고 기도하던 중에 섬광 같이 제 마음을 후려치는 생각 한 줄기가 사명처럼 뚜렷이 다가왔습니다.

**교회 건축! 예배당을 짓자!**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의 기본 기쁨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임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밥퍼식당에서 드리는 1주일의 한번 토요일 어린이예배로는 ‘성도’라는 정체성이 희박하여 기분 내키는 대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며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1월에 필리핀 다일비전센터로 찾아오신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빠짐없이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꼭 교회의 예배당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기억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예배당이 세워지면 교회 지도자와 예수의 제자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를 길러내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을의 중심이 될 정도의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여서 학교와 병원도 짓고,

마을의 교육과 문화를 주도하는 센터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다일공동체의 2012년 비전입니다.

**필리핀 까비떼다일교회 건축!**



새장승포교회 미용봉사

꼭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은 순종하여 동참해 주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꿈을 가진 자는 고독하지만 날로 담대해 질 것입니다. 아하

P.S. : 놀이터 후원금을 주신 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교회 건축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교회마당에 놀이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교회 건축에 동참하실 분들은 벽돌쌓기 후원금을 보내주십시오. 벽돌 한 구좌 1만원, 목표는 벽돌 5,000 구좌입니다.**

글/필리핀다일공동체 김혜경 원장

**생명을 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루 급식비 60,000원**

**한 주일 급식비 300,000원**

**한 달 급식비 1,200,000원**

**필리핀 다일공동체 사역소개**

2005년 4월 청량리 밥상공동체 가족들이 ‘자존심 유지비’로 자율적으로 낸 동전 100원을 모은 금액으로 필리핀다일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까비떼주에서 다일비전센터와 다일드레이크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무료급식** 빈민촌의 아동들과 노인들에게 주 6회 따뜻한 점심을 나눕니다.
- ▶ **무료진료** 전문 의료팀을 초청하여 치료하며, 비전센터 내의 클리닉에서는 간단한 치료를 합니다.
- ▶ **교육&장학** 가난해서 배울 수 없는 4-5세 아동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다일드림데이케어센터(유치원) 운영, 1:1결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토요예배** 매주 토요일 지역아동 및 주민들과 찬양예배를 드립니다.



# 베트남을 향한 사랑의 손길들

간질을 앓고 있는 소녀 후와에게 약을 보내주세요. 간질에 관한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억제제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베트남 소녀 후와의 약을 후원하실 후원자를 찾습니다.

베트남은 구정을 제일 큰 명절 중 하나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가족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머물러있는 사람들도 고향으로 모일 정도로 최대 명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베트남에서의 첫 새해를 보내며 올 한해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길을 내리니” (이사야43:19)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 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보며 연약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트남 다일공동체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1:1) 말씀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베트남에서 올해 새롭게 진행되어 질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호치민 온누리교회 이종훈목사님과 협성대 학생 밥퍼 봉사.

호치민 온누리 교회를 통해 베트남에 봉사 온 협성대학교 학생들이 현지 교아원과 베트남다일공동체 밥퍼에 봉사하기 위해 방문하여 현지인 교아원과 다일공동체 밥퍼 센터와 빵퍼로 후원하고 있는 흑목교아원을 방문 하게 되었습니다. 밥퍼 센터와 흑목 교아원을 방문하여 마음

껏 아이들에게 찬양과 울동을 보여 주고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봉사 온 학생들이 더 기뻐하며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한 번 더 밥퍼와 흑목교아원을 방문하여 쌀과 선물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물을 받는 아이들뿐 만 아니라 전해 주는 학생들도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우리은행과 우수고객 봉사

우리은행의 최철우지점장님께서 직원들과 우리은행의 우수기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밥퍼를 방문하여 봉사하셨습니다. TESCO 유명식대표, 이승토건 황금상대표, POSCO 베트남 김대업부장, 델타전기 한중구대표님께서 밥퍼에 오셔서 봉사와 후원을 해 주셨고 우리은행 호치민 지점에서 구정을 맞아 쌀 750kg, 조미료 158set을 선물로 가지고 오셔서 가난하





고 혈벗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에 베트남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봉사를 해 왔지만 직접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밥을 푸고 섬기면서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것 뿐인데 보람 있고 가슴이 따뜻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아가베이 교회 쌀퍼.**

베트남다일공동체가 빵퍼로 후원을 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난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으로 밥퍼 사역을 해달라고 요청해온 지역 중에 한 곳인 빈짠에(푸미흥 근교) 있는 베트남 현지인 교회인 아가베이교회를 방문하여 우리는 행 호치민지점으로 부터 후원 받은 쌀 150kg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주민의 대부분이 복권 판매와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렵고 굶주림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생활하는 주민 중에 더 어려운 삼십명을 선별하여 쌀 5kg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쌀을 들고 가시는 분들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고4:20)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 했습니다. 능력이란 여러 가지 뜻이 내포 되어 있기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구하던 중에 제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능력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잘 섬길 수 있을지 고민 하던 저희들에게 “사랑하라 사랑만이 능력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소외되고 삶의 희망이 없는 분들에게 사랑으로 잘 섬기며 이분들에게 새로운 희망들과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는 밥퍼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내리는 비로 인해 기온도 갑자기 떨어져 후와라고 하는 15살 먹은 여자아이가 간질로 인한 경련을 일으켜 한 비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 온 후와의 어머니와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아무런 상처 없이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갔지만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 아이에게 간질 약은 그저 사치 일 뿐 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간질 약은 치료제가 아닌 억제

제라고 합니다. 힘든 몸을 추스리며 밥도 못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의 뒷 모습, 그 아이의 아픔을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쳐다보기만 해야 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후와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을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또 다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을 정기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약을 후원해 주실 후원자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후와의 천사가 되어 주세요.

글/베트남다일공동체 이종현 원장

**베트남 다일공동체 사역소개**

- ▶ **무료급식** 빈탄군 빈흥화 마을에서 고아, 과부, 독거노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무료진료** 지역사회의료봉사팀을 초청하여 치료하고, 약을 나누고 있으며, 2004년 구순구개열수술과 2009년 개안수술 시작으로 장애로 고통받고 있던 이들에게 아름다운 변화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의 가정을 찾아가 일상생활을 위한 제반 서비스(도시락, 생필품지원, 집수리 등)를 통해 희망을 전합니다.
- ▶ **교육&장학**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아동결연사업을 실시, 이를 통해 학교보내주기, 다양한 학습기회제공, 학습물품지원 등 물질적 서비스와 교육이 지원됩니다.


로그인 | My해피빈 | 네이버

**모금합** <더보기>

- 진행 중인 모금합 **3개**
- 완료된 모금합 **9개**

**기부하기**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다일복지재단은 다양한 인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다일 공동체의 화해와 일치, 나눔과 섬김의 정신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구차적인 사랑을 실천하고자 1888년부터 노숙인을 위해 무료급식사업(밥따)을 하고 있으며, 1...

4,012,600 원

1,005명 모금하였습니다. > 기부원장

**우리단체 모금합**



**력추족만증과 소아마비, 보만...** [기부하기](#)

자신을 살려준 의사처럼 의사가 되고 싶은,  
모금현황 : 1,760,900원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힘...** [기부하기](#)

같이계 쓰러진 한 할머니에게 라면을 끓여드,  
모금현황 : 315,000원



**생명을 살리는 밥 내팔아이들...** [기부하기](#)

생명을 살리는 밥, 내팔 빈민은 아이들에,  
모금현황 : 252,500원

**함께하는 이야기**

해피빈그 이모저모 >

새 소식 참여하세요

자원봉사 모집

오늘의 이야기 >

기부 봉사 후기

감동이 있는 이야기

다일공동체

밥따나눔운동

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설곡산다일공동체

## NAVER 해피빈 한 알의 콩이 한 톨의 밥이 되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힘, 밥심! 밥퍼가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합니다.

온라인 콩저금통에 콩을 기부하시면 한 알의 콩이 한 톨의 밥이 되어 우리 이웃들에게 밥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 기부방법

네이버에서 메일을 쓰거나, 블로그 카페에 포스트를 남기고 기부할 수 있는 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콩 1개는 100원의 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나도 모르게 모아진 콩이 있다면

다일공동체 콩모금함(<http://happylog.naver.com/dail.do>)로 들어가

다일공동체 밥심 캠페인에 기부해 주세요!!

모금기간 2012.01.12. - 2012.03.12

모금목표액 4,000,000(콩 40,000개)

후원문의 02 2212 8004([www.dail.org](http://www.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 01 142565(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역 광장에 쓰러진 함경도 할아버지 한 분에게  
 라면을 끓여드렸던 처음처럼  
 24년을 이어온 생명나눔 밥피!  
 2012년도 그때 그 처음처럼,  
 따뜻한 밥으로 우리 이웃들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드립니다.

명절을 앞두고 떡국 나눔을 하는 날은 어느 때보다 긴 줄이 밥피 마당을 가득 채웁니다.  
 명절이 되면 누구나 따뜻한 명절음식과 가족들의 품이 그리워질 때입니다.  
 밥피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가족의 빈자리로 더욱 쓸쓸합니다.  
 그 마음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지만 따뜻한 밥과 떡국 한 그릇  
 정성들여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보다 밥을 수북히 담고 떡국을 한가득 담아 사랑으로 고명을 얹어 전달합니다.  
 이 추운 겨울 잘 견디시고 올 한해 무엇보다 건강하세요.

아래의 주소로 들어가면

하나, 밥피의 따뜻한 나눔 이야기를 더욱 몽클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둘, 갖고 있는 쿠폰을 밥피 뿐만 아니라 해외 아동들에게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http://happylog.naver.com/dail.do>



## 삶,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매일같이 밥퍼에서 점심진지를 드시는 노부부는  
나란히 오셔서 사이좋게 점심진지를 드시고  
함께 자리를 뜨시는 잉꼬부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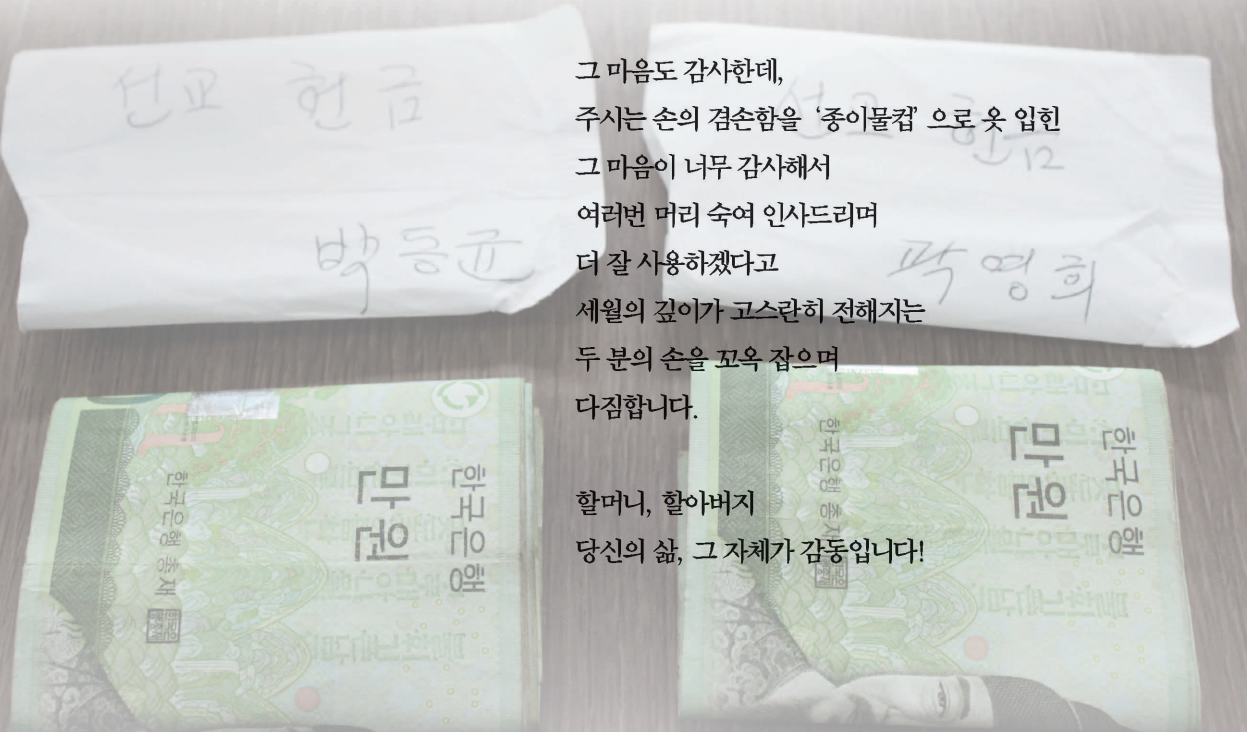
사연을 들어보니,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으신 할머니 덕에  
여태껏 할아버지께서 손수 살림을 도맡아 하셨는데,  
형편도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하루 한 번 슬슬 밥퍼로 오셔서 진지를 드신다고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당신들같이 외롭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으로 큰 힘을 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꼬깃꼬깃한 종이물컵을 내미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의아해하면서 받은 봉투에는  
'선교헌금' 이라는 글자와 두 분의 존함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번 접어 넣은 만원짜리 몇 장과 함께  
셀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담겨있었습니다.

그 마음도 감사한데,  
주시는 손의 겸손함을 '종이물컵' 으로 옷 입힌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번 머리 숙여 인사드리며  
더 잘 사용하겠다고  
세월의 깊이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두 분의 손을 꼬옥 잡으며  
다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당신의 삶,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에게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2012년 1월 1일 ~ 26일 국내통장 입금 기준입니다)

(주)사람 박정란  
 인에이치 배은진  
 알 서미연  
 (주)은광 서은영  
 사 서해도  
 강명숙 소망교회  
 강선미 국내선교  
 강정아 부  
 고민정 손순옥  
 구권능 심동섭  
 기호전 여산교회  
 김동숙 용동교회  
 김미식 위미영  
 김보경 유미옥  
 김복순 유병삼  
 김 선 명 유선희  
 (맛 닭 꼬 유수연  
 삼전점 윤정규  
 김수윤 윤정원  
 김용석 이각주외  
 김원환(2 3인  
 월18일 이경재  
 김은이 이 교 휘  
 김인식 (이홍규)  
 김정숙 이금신  
 김정원 이동원  
 김창혁 이미영  
 김현영 이미혜  
 김희정 이민혜  
 나향근 이운승  
 대한지적 이재성  
 공사 이정석아  
 도레이첨 따5기  
 단 소 재 이진선  
 (주) 이창열  
 동양네트 이현규  
 웹 스 인명진목  
 (주)김사 사  
 의 임영숙  
 라선미 입지영  
 롯데청량 장영희  
 리점 전동여  
 민대홍 전옥자  
 박신영 전은진  
 박영숙 전정원  
 박영자 전해술  
 박영자 정복훈  
 박윤진 정사라  
 박은경 정예진

정지환  
 정필화  
 주님의말  
 안영란  
 주식회사  
 맥스원이  
 링크  
 주식회사  
 앤쌌  
 주인옥  
 중앙교회  
 최석록  
 최승자  
 최인순  
 최정아  
 최호기  
 추고은  
 팽명호  
 한경미  
 한애전자  
 (주)  
 허명희  
 흥안길  
 THC

**반퍼나눔운동 후원**  
 김효숙, 윤현숙, 정신남,  
 경희고등학교, 서울석유,  
 한국외대ROTC, 경흥옥,  
 윤민형, 한승호, 태광산업,  
 신일교회청년부,  
 홍혜순, KT&G복지재단,  
 김수일, 한혜숙, 러시아캐쉬,  
 서울시청 주거재생과,  
 박경향, 건축사사무소젠,  
 박종일, 일산은혜교회,  
 서울메트로, LB인베스트먼트,  
 금호미쓰이화학, 이윤수,  
 미래에셋, 이종옥, 오피스넷,  
 서울사동부교육지원청,  
 김동운, 무명, 서울메트로,  
 김재석, 사람인HR,  
 유엘코리아, 대일기획, 임혜인,  
 김한준, 이동원, 다일교회,  
 에이앤지코리아, 양순화,  
 김정숙, 투모로법무사,  
 동승교회, 소망교회국내선교부,  
 최경근, 이각주외3인,  
 최다영, 도레이첨단소재,  
 대한지적공사, 두원공과대학,  
 국방홍보원, 이일옥,  
 태광(티브로드), 정희주

## 후원물품

12/17 낮은림 쌀20kg,  
 한승곤 쌀 50kg  
 12/20 가나다푸드마켓 자색  
 김치1box,  
 12/21 강민수, 이초아 씨래기,  
 12/22 나눔스토아 쌀 20kg ,  
 굴10kg 50box  
 12/23 사조김 2,704개,  
 해표만두 1,000개  
 12/26 서울우유 김치10kg  
 50box, 김승화 굴 2box  
 12/27 대한주택보증 배 40box,  
 선거관리위원회 쌀20kg  
 20포, 김중수(청량리농협  
 자점장)20kg 100포,  
 영란중 20kg 6포  
 12/28 시립대 할머니 쌀20kg 2포  
 12/29 권수한 양말1,000개,  
 무명 내복 100벌  
 12/30 카이스트 목도리 800개  
 1/4 경흥농장 굴50box  
 1/9 경흥농장 굴50box  
 1/10 가나다푸드시스템  
 동치미 1box,  
 깨끗한 나라 휴지 8box  
 1/12 동대문직접자 빵 400개

1/13 대한주택보증 쌀20kg 4포  
**천사병원 후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  
 세제용품, 습기제거제,  
 주방도구 등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  
 영양제, 수액 등 152개  
 무명 - 치약, 비누 2상자

## <해외분원>

**네팔다일공동체**  
**방문 및 후원의 손길**  
 Global Peace Makers,  
 성신여대팀 360개의 연필과 노  
 트, 닭고기  
 Kccc, 한동대학팀,  
 성문용 목사, 팀세나

## 중국다일공동체 후원의 손길

코나 DTS,  
 훈춘시 교육국(실내화, 내복), 훈  
 춘시 부녀연합회,  
 스마일넷, 스마일 피기넷,  
 영광제빵(빵과 웃)

## 베트남다일공동체 후원의 손길

**나눔 회원(\$100의 가격)**  
 TEMSCO 유명식대표,  
 우리은행, 협성대학교, 최다원,  
 대한어린이집

## 자원봉사자

최용하, 안영숙, 최다현, 최다빈,  
 우리은행 최철우지점장의  
 11명, TEMSCO 유명식대표,  
 이승토건 황금상대표,  
 포스코 베트남 김대업부장외  
 2명, 온누리교회  
 이종훈 목사의 4명,  
 협성대학교 학생 21명,  
 코렘 어학원 윤준화대표외  
 16명, 포스코ICT  
 김광석소장의 13명

## 후원물품

우리은행 쌀750kg,  
 조미료set 158개,  
 서림베트남 임원식대표  
 숟가락 300개,  
 PHUDC GIANG 강경태대표

모금함 30개,  
 뚜레쥬르 빵 3676개.

## 필리핀다일공동체

### 후원의 손길

새장성포교회(이은한, 이은주,  
 김상일, 황위성, 박정희,  
 소년부, 이미용팀,  
 해외선교동우회, 권사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지일환, 문정효, 신동환,  
 이희철, 한상소, PTS한인교회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천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캄보디아다일공동체

### 후원의 손길

박병기  
 연무대 기계공고  
 기계과 교사 일동  
 이병로  
 사랑여행사 대표 강영옥  
 안양김리교회 중등부  
 선교부 JJS 8기  
 참빛교회 김영희집사  
 이태숙, 박한숙, 이태의,  
 이에훈, 이에린  
 무명(2명)  
 다원회  
 원종태  
 충신교회 정병조, 조창연  
 황일남 가족  
 대전그랜드 음악학원 이순금  
 김소영, 김재현  
 목양교회 청년부 홍지원,  
 홍정우  
 목포벨벳교회, 강진읍교회,  
 강진계상교회(D.M)  
 이하은  
 이복영  
 정해련, 조현숙  
 이동원

후원 및 자원봉사 문의시  
**다일복지재단**  
 전화 02-2212-8004  
[www.dail.org](http://www.dail.org)  
 연락바랍니다.

# DAILY NEWS

## 밥떠나눔운동본부

### 삼립식품 '호빵 나눔 Day'

설 명절을 앞두고 삼립식품 임직원분들이 밥떠 앞마당에서 '호빵 나눔 Day' 행사를 가졌습니다. 나눔행사에 참여한 삼립식품 임직원분들은 “오늘 함께 나누어 먹는 호빵이 그간 먹었던 호빵 중 가장 최고의 맛!”이라며 나눔의 즐거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NS 흙소평 사랑의 쌀 나눔

## NS흙소평

### '설맞이 NS 사랑의 쌀 나눔'

지난해 말 임직원분들의 밥떠봉사로 함께 해주셨던 NS흙소평에서 매일 어르신들의 진지를 준비하는 천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쌀 1004포를 전해주셨습니다.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쌀을 나르고 옮기면서 사랑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졌습니다. 올 한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사랑의 쌀로 하루하루 정성들여 밥을 짓겠습니다.

### 설맞이 선물주머니 전달

지난해 연말 카이스트에서 준비한 목도



삼립식품 호빵 나눔

리 선물에 이어 후원자 한분 한분이 보내 주신 물품들을 모아 설맞이 선물을 어르신들과 나누었습니다. 연휴기간 드실 수 있도록 떡과 김, 굴을 비롯해 따뜻한 양말까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기쁘고 즐거운 시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다일천사병원 & 다일작은천국

### 동천교회 중등부의 정성어린 후원

지난 12월, 동천교회 중등부에서 너무도 귀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중등부 학생들이 TV 영상에서 보았던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을 생각하며 1년 동안 헌금을 하고, 바자회를 하면서 후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도와야 할지 막연해 하던 중, 다일공동체가 아프리카처럼 가난한 네팔과 캄보디아에서 빈민촌 어린이들에게 직접 사역을 하는 것을 알고는 빈민촌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달라는 뜻으로 후원을 결정해주셨습니다.

동천교회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 해외 유학생 봉사

지난 겨울 방학 동안, 다일천사병원과 다일작은천국에는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찾아와 봉사한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체류 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되는데도, 그기간 전부를 다일천사병원과 다일작은천국의 대상자들을 위해 봉사를 하였습니다.

출국 전날까지도 봉사를 하고는 여름방학 때 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후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 정기적으로 생활용품들을 후원해줍니다.

다일작은천국 입소자들을 위해 날마다 필요로 하는 소모품들이지요. 직원들이 만사후원자로 동참해주시기도 하고, 이번에도 별도의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등구 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 매우 감사합니다.



다일작은천국 김0님 천국환송예배

### 작은 천국에서 하늘 천국으로

#### 천국환송식

다일작은천국에서는 故 김0님의 천국환송식이 있었습니다. 약 6개월 전 간암 말기의 몸으로 입소하시어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다일작은천국에 의지하며 지내신 분입니다.

최일도목사님으로부터 병상 세례를 받으신지 한 시간 여 만에 전 직원들이 지켜보며 손을 잡아주는 동안 평안한 모습으로 소천하신 것입니다.

가족처럼 서로 의지하며 지냈던 동료 입소자들과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의 눈물 어린 환송을 받으며 저 천국으로 오르신 김0님!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 후원 및 자원봉사 요청

다일천사병원에 오시는 모든 환우분들은 필수적으로 혈압 측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혈압계 노후로 인해 고장이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후된 혈압계를 교체할 수 있도록 후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일천사병원과 다일작은천국의 자원봉사하는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의료진들의 봉사와 재능기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뜨거운 사랑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02-2213-8004

담당자 김래홍 주임

### 설곡산다일공동체

아름다운 설곡산다일공동체입니다. 아해 2012년 새해 아름다운 세상찾기 135기가 1월16일부터 20일까지 있었습니다. 54분이 참가하시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을 체험하셨습니다. 일체는혜감사뿐이었습니다.



설곡산다일공동체 135기 영성수련 단체 사진

###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

135기 영성수련 후 이00님께서 교직 정년퇴임을 기념하며 다일공동체 다역을 위해 5천만원 특별헌금을 하기로 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네 분의 벗님 1004만원 평생천사회원이 되어주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 다일영성수련 진지도우미 모임

설곡산 다일공동체에서 그 동안 영성수련 진지도우미로 수고하셨던 다일 영성

진지도우미(다영진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35명의 진지도우미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2012년 다일영성수련을 더욱 잘 섬기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목안리 다일평화의 마을

마을 어르신들께 사랑의 김 나눠드리기 DTS 훈련원이 위치한 목안리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께 새 해 인사를 드리고 맛있는 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르신들, 올 해도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것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 20기 이석기(비어드)님, 박진영(산들바람)님 3개월 과정 수료

이석기님과 박진영님이 3개월 과정을 무사히 마치시고 다일패밀리들의 축복 속에 정든 훈련원을 떠나셨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성실하게 주어진 과정을 잘 따라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해외분원 소식

#### 캄보디아다일공동체

##### 거저축제 개최

거저축제를 두 번했습니다. 아동결연 아이들과 프놈끄라움 중학생들을 초청하여 그 동안 기증해 주신 옷과 학용품들을 나눠주었습니다.

##### 한동대 봉사팀 방문

한동대학교 워십댄스 동아리 10명의 대학생들이 열흘동안 열심을 다해 섬겨주셨습니다. 센터에서 숙식하며 밥퍼 봉사뿐 아니라 밥퍼에서 멋진 워십댄스 공연도 보여주었습니다.

방과후교실 워십댄스반 아이들에게 예쁜 단체티도 선물해주고 워십도 가르쳐주었습니다.

한동대 학생들과 캄보디아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하여 씨엠티 참빛교회에서 주일저녁예배 때 아름다운 워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T & G 복지재단 배기증식

### KT&G 복지재단 대학생 해외봉사단 활동

1/6-1/15 KT&G 복지재단 대학생 해외봉사단 활동이 있었습니다. 밥퍼봉사활동, 유치원 교육, 집짓기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교육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유치원 아이들을 정성껏 가르쳐주고 아이들 머리감기, 센터 청소, 시설 보수 등 다양한 활동들과 함께 알찬 일정을 보냈습니다.

### 부천 참빛교회 봉사팀 방문

부천 참빛교회 학부모, 선생님, 어린이들 30명이 오셔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음악공연과 찬양, 율동들을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비누방울, 풍선 놀이를 하는 등 재미있고 은혜로운 성경학교 시간이었습니다.

### 캄보디아 비전센터 착공 예배

비전센터 착공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며 스태프들과 함께 비전센터가 들어설 땅에 가서 풀도 베고, 앞으로 비전센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캄보디아 다일 비전센터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열방을 향한 섬김과 나눔의 사역의 귀한 장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훈춘 교육국 방문 후원

## 중국다일공동체

### 웃놀이 대회

훈춘한인교회 교인분들이 준비해 주신 맛있는 저녁으로 파티를 하고, 특별 상품이 걸린 웃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번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음식과 재밌는 웃놀이를 준비해 주시는 훈춘한인교회 교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방문해 주신 분들

1월 16일 - 중국의 최대 명절 춘절(한국의 설입니다)을 맞이하여, 훈춘시 교육국과 부녀연합회에서 방문을 하여, 아이들에게 내복과 실내화를, 그리고 후원금(1000元/18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웨와 원삼이를 아들로 삼아 주신, 시카고의 스마일님과 스마일피기님이 아이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장갑과 목도리, 모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올 겨울은 스마일님과 스마일피기님 덕분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미주 다일공동체

### 신년 사무식으로 산뜻한 출발,

### 미주 다일공동체

2012년 미주 다일공동체 신년 사무식이 1월 2일 월요일 밤 7시에 애틀랜타 유빌라테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4박 5일간의 그 짧은 미국방문 중에도 이사야 43장 19-20절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미주 다일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주신 최일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신 모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미주 다일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주다일공동체 사무식

### 애틀랜타 유니언 미션내 밥퍼 사역

1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저녁 식사 배식이 시작되기 3시간 전인데도 벌써 남성 홈리스들의 밥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늦게 가면, 배식이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은 미주 다일공동체가 장을 보아 400명분의 샌드위치를 준비하여 대접하는 날입니다.

변함없이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함께 해주신 권영수 권사님, 그리고 노크로스 한인교회 청년들, 무엇보다 이런 아름다운 밥퍼사역을 가능하도록 꾸준히 후원해주시는 미주 다일공동체 후원자님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 청년의 열정, 미주 다일공동체 최기천 이사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미주 다일공동체를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미주다일공동체 이사, 최기천 장로님을 엘리버마현스빌 한인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비록 지금 힘겨운 항암치료 중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가운데 진지한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장로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청년의 열정을 전해주시는 장로님, 강건하셔서 땅 끝까지 행복전도사가 되어주세요.

## 네팔다일공동체

### 네팔현지상황

지금 네팔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12시간씩 정전이 되고 주유소에는 기름이 없고, 가스도 없으며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 촛불을 켜 놓고 밥을 해야하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네팔다일공동체가 있는 마느하르강변 빈민촌 마을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네팔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팔다일공동체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밥퍼의 역사

### 개원 4주년 기념 감사예배

공동체 가족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던 다일공동체 막내 네팔다일공동체가 1월 11일 만 4살이 되어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에 네팔 다일공동체는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또 다른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4주년 감사예배를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계속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세요.





네팔다일공동체를 방문하셔서 활동하신 봉사자  
님들

### 성신여대 교수님과 학생들이 봉사

성신여대 교수님과 학생들이 네팔다일공  
동체에 방문하여 함께 봉사해 주셨습니다.  
봉사하면서 한 교수님께서 예전에는 한  
국도 미국의 원조를 받다가 이제는 도와  
주는 나라가 된 것을 들으며 네팔도 도  
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 기도해 주세요

밥퍼를 찾는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30  
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의 밝은 빛을 내는 네팔을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Babfor** 와  
함께 하신  
아름다운  
얼굴들

"나는, 자랑스러운  
밥퍼의 자원봉사자"



NS희소평

ns희소평 직원들이 사랑의 쌀을 나르고 화이팅  
을 하고 있습니다.



두원공과대학 총장님과 교직원 및 학생 봉사팀

두원공과대학 총장님및 교직원, 학생들이 이를  
연속으로 밥퍼 봉사를 하였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손광만님 가족

대구에서 손광만님 가족들이 아침에 기차를 타  
고 서울에 올라와 밥퍼 봉사를 마치고 돌아갔습  
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희망온돌프로젝트팀

서울시 도시계획국 희망온돌프로젝트팀이 밥퍼  
봉사를 통해 현장에서 독거어르신들과 노숙인들  
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밥퍼를 찾아주신 개인봉사자들

설날 다음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개인분들  
이 모여 30여명의 봉사자들이 밥퍼 봉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도레이첨단소재 신입사원 봉사팀

화학섬유의 선두주자인 도레이첨단소재 신입사  
원들이 열정과 포부로 밥퍼봉사를 하고 돌아갔  
습니다.

다일은 여러분의 맘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 ARS 060-708-1588

###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 1. CMS를 통한 후원

-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지로를 통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روه원을 전화로 신청하시면 매일 발간되는 「다일공동체」에 동봉하여 보내드립니다.  
지로용지는 각 은행에 비치된 지로용지를 이용하셔도 가능합니다.  
지روه원 신청전화 02-2212-8004

\* 지로번호 ▶ 7657249(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3. 인터넷에서 카드 결재를 통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www.dail.org**로 접속하시면 카드결제가 가능.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체 참여

#### 〈행복나눔〉 참여

가게 혹은 기업에서 수익금의 1% 또는 일부를 통해 다일공동체의 복지사업에 기부하는 참여

**후원 계좌** \_ 국민은행 010-01-0975-871  
제일은행 150-10-013794  
농협 031-01-433638  
기업은행 017-033086-01-038  
신한은행 140-00-5428327  
하나은행 158-910002-46204  
외환은행 131-22-01134-2  
우체국 010983-01-003220  
우리은행 014-039161-01-601

**후원 문의** \_ TEL 02-2212-8004

FAX 02-2243-8005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5-15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국내 후원 문의** \_

TEL 770-813-0899

### 보험상품을 통한 참여

#### 사랑의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귀하의 보험료 일부가 다일복지재단에 기부됩니다.  
(문의 : 02-2212-8004)

#### 사랑의 보험 1°C(일도씨) 더 따뜻한 세상 만들기

다일복지재단을 수탁자로 하는 생명보험입니다. 연령별로 약 1~2만원의 보험료로 1천만원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액 복지재단의 비전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미주지역 후원계좌

-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 은행번호 : 061119794  
• 계좌번호 : 1510014622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34001270347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전창근 원장 M 1-773-621-3981

###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밥떠남운동본부 문의전화** 02-2214-0365

E-mail mookanri@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minjuna8@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중국다일공동체 전화** 86-433-753-8004

E-mail twojungwon@dail.org

후원계좌 기업은행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베트남다일공동체 전화** 84-95-999-1004

E-mail 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전화** 855-78-708080,  
855-89-53-9977

E-mail lightk@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42565

프놈펜반파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4257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필리핀다일공동체 전화** 070-8220-3278

Mobile 63 927 560 7346

E-mail graceke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네팔다일공동체 전화** 977-9841-384069

E-mail bhuban12000@yahoo.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NS eshop의 새 이름  
**nsmall**이  
새롭게 인사 드립니다

브랜드는 새롭게, 건강함은 그대로  
NSeshop이 nsmall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건강한 먹거리에서 건강한 생활까지  
이제부터 nsmall.com을 찾아주세요.



# DAIL community



아시아 청년들이 함께 공유할 비전을 바라보며  
- 아시아 다일 비전센터 착공식에서 -

함께 동참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문의/ 855-78-708080(김형길 목사), 855-89-539977(김영란 간사)